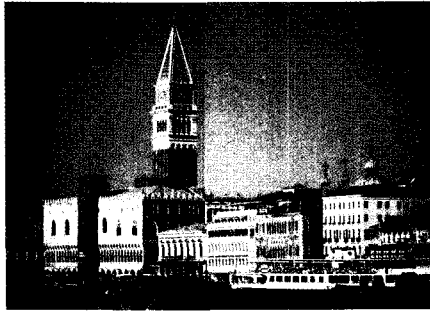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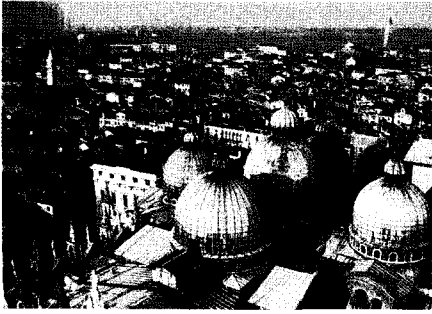




아름다운 그곳,

베네치아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빛바랜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120여 개 섬과 그 섬들을 연결하는 170여 개의 운하, 400여 개 다리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이다. 베네치아의 볼거리는 중세 건물과 광장 그리고 운하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빛바랜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의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하다.

베네치아의 주요 교통수단은 '바폴레토'라 불리는 수상 버스와 곤돌라 그리고 수상 택시다. 11세기부터 시민의 발이 돼 온 곤돌라는 이제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명물이 되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베네치아에서는 1년 내내 크고 작은 축제들이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다.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많은 축제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축제는 베니스 영화제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는 매년 8~9월 리도섬에서 열린다. 2월에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전 10일 동안 열리는 '베네치아 카니발' 역시 유명하다. 원래 카니발의 어원은 라틴어의 카르네 발레(Carne:고기, vale:격리) 혹은 카르넬 레바레(Carnem:고기, Levare:안떡다)로 사육제(謝肉祭), 즉 '고기와 작별을 고함'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카니발은 크리스마스가 끝난 12월 26일 경부터 시작되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날인 재의 수요일까지 계속된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부활절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사

순절에 예수가 황야에서 단식한 것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실컷 고기를 먹고 즐겁게 놀았던 것이 그 시초였다. 카니발이 처음 시작되었던 16세기경에도 이때만큼은 귀족이나 평민 모두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화려한 복장과 독특한 가면을 쓰고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 이와 같은 전통이 각 나라의 특성과 맞물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각 지역에 퍼져 나갔다.

재의 수요일 전 열흘간 계속되는 베니스 카니발이 시작되면 수천 명의 군중들이 베니스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산마르코 광장(Piazza di San Marco)으로 모여 든다. 갖가지 모양의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차려 입은 가장 행렬들이 광장을 가득 메워 장관을 연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잦은 침수로 곤욕을 치른 베네치아는 치솟는 물가와도 전쟁 중이다. 또한 관광 외 산업들이 침체를 겪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베네치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도 베네치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수상 도시 베네치아 거리를 거닐어 볼 수만 있다면 샌드위치와 생수 한 병으로 점심을 때우면 어떠랴. 시간과 여비만 허락된다면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